

전 남

전남 긴 장마로 농작물 다 망쳤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집중호우로 수박농사를 다 망쳐버려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올해로 13년째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영암군 시종면 월곡리 청송마을 나종섭(38)씨는 잠초속에서 썩어가는 수박을 들어보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씨는 수박 출하를 앞둔 지난달 7·8일과 15·16일 영암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노지수박과 비닐하우스 수박 농사를 모두 망쳐버렸다.

나씨는 수박 조기출하를 위해 지난해 군 시설자금 등 1억7천만원을 집중투자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단 한 통의 수박도 출하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매기 거래 중간상인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 올 70여 일간의 수박 농사가 물거품이 돼버렸다.

올해 한 달 이상 지속된 장맛비로 인해 수박, 고추 등 전남지역 농작물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강수량 많고 기온·일조량 떨어져 생육 저조

고추 탄저병 수확 포기... 복숭아·수박 등 피해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기준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24일간 607.4mm, 8월 들어서도 9일간 128.7mm의 강수량을 보였다. 7월 한 달간 내린 비는 30년 평균인 평년값 281.9mm보다 2배 가량 많고, 유난히 가물었던 지난해 139.2mm에 비해 4.4배 많았다.

이에 따라 평균기온과 일조시간마저 툭 떨어지며 농작물 생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월 평균기온(광주 기준)은 24.8℃로 평년 25.5℃, 지난해 27.3℃보다 낮고, 일조시간 역시 90.1시간으로 평년 163.1시간과 대조적이다.

고추의 경우 생육기에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품질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와 탄저병 등 병

해충이 늘어나 작황부진이 우려된다. 김남철 영광 굴비골농협 조합장은 “법성·홍농지역 고추 재배면적 300여ha 가운데 60%가 바이러스와 탄저병 피해를 입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올해 생산물량이 크게 달라 계약출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총체벌레에 의해 전염되는 ‘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일명 칼라병)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추 3천300㎡(1,000평)를 재배하는 임기현(46·영광군 법성면 신장리)은 “고추에 칼라병이 번져 상품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탄저병으로 말라 죽고 있어 수확 자체를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포도나 복숭아 등 수확이 한창인 과일은 당도가 떨어진데다 과일 크기가 작고 착색이 나빠 상품성이 떨어졌다. 조기재배한 벼의 경우 현재 등숙기를 맞고 있으나 등숙 적온이 20~22℃여서 생육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전망하고 있다.

박태홍(54) 영암군 시종면장은 “영암지역에서 호우로 수박피해를 본 127농가(피해면적 68만4천885㎡) 가운데 82농가(55만8천806㎡)가 시종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시설농가를 돌며 호우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당장은 위로의 말 밖에 할 일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영암지역은 4월 저온피해(483농가), 5월 우박피해(140농가)에 이어 7월 집중호우(2천26농가) 등으로 2천649농가에서 3천92ha, 9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나이는 숫자일 뿐” 실버스포츠댄스

지난 12일 강진 청자축제 행사 일환으로 열린 ‘제 5회 전국 실버 건강 스포츠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스포츠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에서 모두 24개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강진군 제공〉

담양 임용예정자 ‘행정달인’ 만든다

郡 100일 프로젝트... 임용 전 직무 능력 배양

담양군은 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행정달인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2009년도 신규 임용 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행정달인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규임용 예정자들은 이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분청과 읍·면에 배치돼 신규임용 전에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군정업무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번 ‘행정달인 프로젝트’는 임용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습득하고 담양군의 역사와 군정 흐름을 파악해 복잡 다양한 행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 수습과 더불어 실무보조를 병행하고 1개월 단위로 근무태도와 구성원간의 관계, 조직에 대한 적응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서장의 평가를 통해 임용시 반영하게 된다. 또 근무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보수는 9급 1호봉 급여 지급과 4대 보험에 가입된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주민·출향 향우, 완도 발전 앞장

‘내 고장 사랑 운동’ 협약

완도군 주민과 출향 향우들이 ‘내 고장 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중식 군수와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박영생 KB 국민은행 호남영업지원본부장, 이인갑 전국연합향우회장, 박경남 변영회장,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고장 완도 사랑운동’ 협약식을 가졌다.

완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 기부문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완도 발전

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내 고장 사랑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운동 가운데 가입시 계좌당 1만원의 특별기금과 카드 사용액의 0.2%가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는 ‘KB 내 고장 사랑카드’ 갖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은 완도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청산도 꽃나무 심기 운동’에 써달라며 꽃나무 심기 기금을 내놓았으며, 이병수 KB국민은행 해남지점장은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을 전달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화순에 첨단 노인병원 들어서

156억 들여 2011년 완공

‘테라피 타운’을 지향하는 화순군에 192 병상을 갖춘 첨단 노인전문병원(조감도)이 세워진다.

화순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사 간 노인전문병원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전완준 화순군수와 사업시행자를 대표해 황태연 제일건설(주)대표이사 등 16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가칭) 화순웰빙케어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향후 건설과 20년간의 운영을 맡게 되며, 화순군은 투자원리를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20년간 상환하게 된다.

화순 노인전문병원은 총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해 화순읍 일리 일원 전남대 병원 옆에 내년 1월에 착공, 2011년 6월 완공될 계획이다.

화순군은 노인전문병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자에게 요양, 치료, 재활 등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수발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07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완준 군수는 “노인 전문병원 건립이 테라피 타운의 화순군이 미지 확보와 첨단 의료단지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상수도 통합시스템’ 본격 운영

수공 전담본부 고객센터 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서비스에 IT를 결합,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센터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1일 환경 수도서비스센터 개소와 함께 IT 기반의 선진 수도요금 및 고객관리를 위한 ‘상수도 통합 정보시스템’(Water-INFO)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자체개발한 ‘Water-INFO’는 요금관리를 비롯해 고객관리, 시설운영 관리, 서비스 포털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된 상수도 종합 정보화 소프트웨어이다.

환경 수도서비스센터는 민원창구를 통한 방문 민원접수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K-water 고객센터(1577-0600)를 통한 통합 상담 실시로 합평 주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환경 수도서비스센터 장태현 단장은 “군민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담 주변 초등생 ‘영어경진대회’

지속적 영어교육·지원 성과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홍규)는 주암, 장흥, 수어면 등 전남지역 담 주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4일 장흥 남도국제교육원에서 영어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어경진대회 행사는 평소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지원, 영어캠프 등 간의 영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나는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EBS 프로그램 ‘모여라 덩동뽕’의 진행자인 ‘어빙이’가 깜짝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영어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전남도 교육감상과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장상이 수여되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수자원공사 본사 영어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송기동기자 song@

합평 양봉회, 명품벌꿀 생산 나서

친환경 벌꿀생산 전진대회

합평 양봉인들이 명품 벌꿀생산에 발 벗고 나섰다.

합평군 양봉연구회(회장 이진행)는 지난 11일 합평군 해보면 용천사 야외무대에서 합평 양봉인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산업 명품화를 위한 ‘친환경 벌꿀생산 결의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진대회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아카시아 벌꿀과 프로폴리스 시식회를 갖고 밀원수 단지 조성 기념 식수를 했다.

이진행 회장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 밀원(密源)조성에 힘쓰는 한편 친환경 벌꿀을 생산해 ‘합평나비 벌꿀’의 명품화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평=형운학기자 hwang@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은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여수국가산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사